

## 만 3~5세 유아를 위한 부모 문해 상호작용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the Parent's Literacy Interaction Rating Scale for Preschool Children

손승희(Seung Hee Son) · 김명순(Myung Soon Kim)

Welfare and Development & Guidance, Hannam University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cale for evaluation of Parent's Literacy Interaction Rating Scale (PLIRS) for preschool children and to examine its validity and reliability.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42 Korean mothers with children of 3 to 5 year olds. The methods for data analysis included item analysis, factor analysis for construct validity, Pearson correlations between PLIRS and two sub tests of EC-HOME for concurrent validity, and Cronbach's  $\alpha$  for reliability. The item discrimination was determined by comparing the highest and lowest groups using Chi-square ( $\chi^2$ ), and Cramer's V. The 25 items of the scale were found to be satisfactory in item discrimination. The concurrent validity was also identified by correlation between PLIRS and two sub tests of EC-HOME. Factor analysis revealed that the structure of the PLIRS consisted of three factors: 'open interaction', 'directive interaction', and 'picture-book reading interaction'. 'Open interaction' is based on 'Whole Language Approach', such as 'I have my child write as he/she likes even if they spell wrongly.' 'Directive interaction' is based on 'Code Emphasis Approach', such as 'I have my child take dictation.' 'Picture-book reading interaction' is how parents read picture-book with her/his children, such as 'When I read a picture book to my child, I ask various questions about a book story.' The Cronbach's  $\alpha$  for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range was .78 to .87 for three subscales. It was concluded that PLIRS was valid and reliable to examine the literacy interac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n home.

**주제어(Keywords)** : 부모 문해 상호작용(parent's literacy interaction), 부모 문해 상호작용 평정척도(parents's literacy interaction rating scale), 타당도(validity)

#### I. 서론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문명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유능하게 생활하기 위한 필수적인 능력이다. 어린 영유아의 경우에도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문자언어를 접하며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주변의 성인 특히, 부모와 상호작용하며 생활한다. 자신보다 유능한 파트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읽기, 쓰

기 능력이 발달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은[3, 7] 문해 활동에서의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

문해 활동시 나타나는 성인의 상호작용 유형은 유아의 문해 발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진다. 첫째, 발음중심 언어지도 방법(code emphasis approach)으로, 행동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아동의 읽기, 쓰기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 낱자나 철자 식별하기, 맞춤법에

**Corresponding Author** : Seung Hee Son, Welfare and Development & Guidance, Hannam University, 70 Hannamro, Daeduckgu, Daejeon, 306-791, Korea Tel: +82-42-629-7437, Fax: +82-42-629-7437, E-mail: snoopy0214@hanmail.net

© Copyright 2012,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맞게 쓰인 단어 찾기와 같은 연습을 중요시한다. 글의 이해보다는 해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읽기를 유창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모체계 글자와 소리간의 대응관계 같은 읽기의 하위 기술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12]. 둘째, 총체적 언어지도 방법(whole language approach)으로 문해 출현(emergent literacy)을 기초로 유아에게 의미 있는 상황에서 유아의 흥미와 욕구를 중심으로 인쇄물의 의미를 습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맞춤법에 맞게 글자를 읽고 쓰는 훈련보다는 그림책 또는 유아에게 의미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문해를 지도한다[16]. 셋째, 복합적 언어지도 방법(balanced language approach)은 발음중심 언어지도 방법과 총체적인 언어지도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특히 나이가 어린 유아인 점을 감안하여 유아에게 의미 있는 맥락 안에서 두 방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14]. 먼저 총체적 접근법에 기초하여 아동의 흥미를 중심으로 그림책이나 맥락적 단서를 활용한 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음운인식이나 철자인식도 유아의 흥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한편, 가정에서의 문해 활동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책읽기를 아동에게 즐거움이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읽기 연습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거나, 부모가 적절한 읽기와 쓰기의 모델이 되지 못할 경우 이들 자녀의 문해 발달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밝혔고[17], 읽고 싶은 책을 아동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어머니와 더 많은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는 가정의 유아가 언어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아동에게 어느 정도 책을 읽어주는지, 아동이 문해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부모가 아동의 문해 활동을 얼마나 도와주는지와 아동의 읽기 능력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가 책을 많이 읽어줄수록, 아동이 문해 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아동의 읽기 발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가정과 교실에서의 문해 활동과 아동의 음성언어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교실 문해 활동 보다 가정 문해 활동이 아동의 음성언어 능력에 대한 설명력이 높았고, 풍부한 가정 문해 활동을 한 아동일수록 수용언어, 표현언어 능력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21]. 또한, 가정에서 책읽기 활동을 많이 하는 만 5세아 일수록 인쇄물 개념 점수가 높다고 보고하였다[10].

이처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언어적 상호작용 및 문해 활동을 많이 하고, 자녀에게 책을 많이 읽어줄수록 아동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모와 자녀 간 문해 활동은 아동의 언어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문해 활동을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도 중요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

와 문해 활동을 할 때 부모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방법으로 임하느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의 문해 상호작용 유형 즉, 발음중심 유형, 총체적 유형, 복합적 유형에 따른 아동의 문해 발달에 대한 효과 연구는 많지만[14, 23],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모와 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부모 문해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부모 문해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도구가 없는 것에 기인한 것일 수 있어 부모 문해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내의 가정 문해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별도의 도구가 거의 없고, 가정문해환경 척도 내에 몇 개의 문항으로 살펴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9, 10, 18] 우리나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모와 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가정 문해 환경은 가정의 물리적인 환경 뿐 아니라 부모의 정서적 지원, 문해에 대한 상호작용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정의 되어야하므로[2, 11] 가정 문해 상호작용을 별도로 측정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교육 및 선행학습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영유아시기부터 한글을 익히기 위한 훈련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해 외국의 도구를 번안하여 그대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하는 문해 상호작용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 문해 상호작용에 관한 여러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부모-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부모 문해 상호작용 평정척도를 개발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 문해 상호작용 평정 척도의 문항 변별도는 어떠한가?
2. 부모 문해 상호작용 평정 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3. 부모 문해 상호작용 평정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대전에 거주하는 만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 3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서울, 경기, 대전의 어린이집 13곳과 유치원 3곳을 임의로 선정하고, 그 곳에 다니는 만 3~5세 어머니에게 담임교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 and mothers (N = 342)

Variables		Frequency (%)	
Children	Gender	Boys	175 (51.2)
		Girls	147 (43.0)
		No response	20 ( 5.8)
	Age	3yrs.	90 (26.3)
		4yrs.	119 (34.7)
		5yrs.	103 (30.1)
No response		30 ( 8.9)	
Age	21~30yrs.	6 ( 1.8)	
	31~40yrs.	285 (83.3)	
	41~50yrs.	50 (14.6)	
	51~60yrs.	1 ( .3)	
Education	Below high school graduate	49 (14.3)	
	Vocational college graduate	58 (17.0)	
	University graduate	191 (55.8)	
	Graduate school or above	44 (12.9)	
Mothers	Job	Housewife	100 (29.2)
		Manual laborer	7 ( 2.1)
		Sales & service	3 ( .9)
		Office job	13 ( 3.8)
		Technical & semiprofessional job	166 (48.5)
		Professional job	32 ( 9.4)
		Other	9 ( 2.7)
		No response	12 ( 3.4)
Monthly - income (won)	Below 1,000,000	4 ( 1.2)	
	1,000,000~Below 2,000,000	3 ( .9)	
	2,000,000~Below 3,000,000	41 (12.0)	
	3,000,000~Below 4,000,000	57 (16.7)	
	4,000,000~Below 5,000,000	84 (24.6)	
	5,000,000~Below 6,000,000	63 (18.4)	
	Over 6,000,000	87 (25.4)	
	No response	3 ( .8)	

사를 통해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연구도구

1) 부모 문해 상호작용 평정척도

가정 문해 환경, 가정 문해 활동, 부모 문해 신념과 관련된 국내외의 척도[5, 8, 9, 11, 13, 22]에서 문해 상호작용과 관련된 문항들을 분석하여 공통 항목을 찾고, 만 3~5세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과의 면접을 통해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해 활동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추출된 문해 활동들이 가정에서 일어날 때 나타나는 상호작용 행동들을 총체적 언어접근법, 발음중심 언어접근법 두 가지 이론적 배경에 입각하여 부모 문해 상호작용 척도의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문항들을 만 3~5세의 자녀가 있는 현장경험 5년 이상의 석사 1명, 박사과정 2명에게 보여주고 문항의 적절성, 표현의 이해정도 등에 대해 검토 받았다. 또한, 그림책 읽기 활동은 가정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문해 활동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부모-자녀 간 그림책읽기 활동을 가정 문해 활동에 포함하는 경향이 있어[1, 18]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을 묻는 문항도 포함하였다.

부모 문해 상호작용 평정척도는 질문지 형식으로 부모와 아동의 인구학적 정보를 묻는 질문 6문항과 부모-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을 묻는 3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31개의 문항은 부모-자녀 간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부모의 모델링, 부모-자녀 간 문해 활동 시 나타나는 상호작용 행동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부모 문해 상호작용 척도는 어머니가 자녀의 문해 발달을 위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자주 그렇게 한다(5점), 가끔 그렇게 한다(4점), 보통이다(3점), 거의 하지 않는다(2점), 전혀 하지 않는다(1점)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항의 상호작용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뜻한다.

2) EC-HOME의 학습자극요인 및 언어적 자극 요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 문해 상호작용 평정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측정지로 만 3~6세 아동용 EC-HOME (Early Childhood-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4]의 학습자극 요인 및 언어적자극 요인을 사용하였다. EC-HOME은 8개 요인의 55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학습자극요인은 11문항, 언어적 자극요인은 7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며 가능한 총점은 0~18점이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연구자가 개발한 부모 문해 상호작용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2011년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개발한 질문지를 현장경험 5년 이상 석사 1명, 박사과정 2명에게 질문지 문항의 적절성, 이해 정도를 검토 받았다. 표현이 애매한 몇 가지 문항을 수정한 후 수정한 질문지를 서울, 경기, 대전에 거주하는 3, 4, 5세 유아 어머니 10명을 대상으로 문항의 이해정도, 표현의 적절성, 소요시간 등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들이 질문지 내용을 무리없이 이해하여 그대로 사용하였고, 소요시간은 10분정도였다.

2) 본조사

본 연구의 본조사는 2011년 8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이루어졌다.

서울, 경기, 대전의 어린이집 13곳과 유치원 3곳을 임의 표집 한 후 그 곳에 다니는 만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 611명에게 담임교사를 통해 부모 문해 상호작용 척도를 배부하고 10일 후 회수하였다. 그 결과 총 381부가 수거되었으나,

무응답 문항이 많은 질문지를 제외한 34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의 부모 문해 상호작용의 문항변별도를 알아보기 위해 총점 분포에 따라 전체를 상, 하 집단으로 구분한 후 두 집단 간의 문항반응의 카이검증( $\chi^2$ ), Cramer V값을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2의 구인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EC-HOME의 학습자극 요인 및 언어적자극 요인과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3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부모 문해 상호작용 평정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부모 문해 상호작용 평정척도의 문항변별도

부모 문해 상호작용 평정척도의 각 문항이 부모의 문해 활동의 질의 차이를 바르게 변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모 문해 상호작용 평정척도 총점을 기준으로 상위50%, 하위 50% 두 집단 간의 문항반응의 카이제곱( $\chi^2$ )과 Cramer V값을 산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문항이 양호하였으나, 문항 11, 12, 14, 15, 20, 22의 카이제곱( $\chi^2$ ) 값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 글자놀이를 할 수 있는 장난감(예: 글자블럭, 글자자석 등)을 이용하여 맞춤법에 맞게 글자를 맞춰보게 한다. 12. 자녀에게 글자를 읽힐 때 어머니가 임의로 생각한 자·모음이나 단어를 써주고 읽어 보게 한다. 14. 자녀가 자모음을 알게 하기 위해  $\Gamma$   $\cup$   $\cap$ ....  $\Gamma$   $\cup$   $\cap$ ... 가나다를 반복해

Table 2. The item discrimination of the parent's literacy interaction rating scale

Item	$\chi^2$	Cramer V	Item	$\chi^2$	Cramer V	Item	$\chi^2$	Cramer V
1	38.79	.35***	12	2.23	.08	23	52.5	.40***
2	43.20	.37***	13	36.15	.34***	24	81.68	.50***
3	18.24	.24**	14	2.79	.09	25	71.04	.47***
4	60.11	.43***	15	.52	.04	26	62.01	.44***
5	55.87	.42***	16	74.49	.48***	27	12.12	.19*
6	59.76	.43***	17	85.85	.52***	28	14.41	.21**
7	66.77	.52***	18	54.58	.41***	29	40.90	.36***
8	24.76	.28***	19	70.13	.47***	30	86.25	.52***
9	53.67	.41***	20	2.52	.09	31	41.66	.36***
10	24.83	.28***	21	12.43	.20*			
11	8.26	.16	22	5.63	.13			

\*\*\* $p < .001$  \*\* $p < .01$  \* $p < .05$

서 읽게 한다. 15. 내가 임의대로 생각한 자·모음이나 단어를 써주고 자녀에게 똑같이 따라 쓰게 한다. 20. 자녀에게 받아쓰기를 시킨다. 22. 자녀가 자모음을 알게 하기 위해 ㄱ ㄴ ㄷ... ㅏ ㅑ ㅓ... 가나다를 반복해서 쓰게 한다 이다.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6개 문항 내용의 중요성과 문항을 삭제했을 때와 포함 했을 때의  $\alpha$ 를 고려하여 이 들 문항을 포함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 부모 문해 상호작용 평정척도의 타당도

1) 요인분석

먼저, 부모 문해 상호작용 평정척도의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하지 알아보기 위해 KMO (Kaiser-Mayer-Olkin)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KMO의 표본 적절성 측정치는 .88이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치는 5033.79( $df = 465$ )로 유의하게 나타나( $p < .001$ ) 수집된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 문해 상호작용 척도가 어떠한 요인으로 구성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절한 요인의 수를 알아보기 위해 스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3~4개의 요인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각각의 요인의 수로 회전시킴

Table 3.  
Factor analysis for the items of parent's literacy interaction rating scale (N = 342)

Name of factor	Items	Factor1	Factor2	Factor3	$h^2$
Open interaction	24. I write letters my child likes to write.	.82			.64
	23. I have my child write as he/she likes even if they spell wrongly.	.74			.50
	19. I read letters that my child asks.	.70			.48
	25. I have writing activities(ex: writing a letter, shopping list, close people's name, etc) with my child.	.67			.60
	26. I talk with my child about my child's own writing.	.67			.53
	16. I read words on snack packs and food packages, recipes, or drug directions along with my child.	.59			.47
	17. I read letters on street signs and shop signs to my child by pointing the letters.	.56			.50
	Directive interaction	14. I have my child read ㄱ ㄴ ㄷ... ㅏ ㅑ ㅓ... 가, 나, 다 repeatedly in order for him/her to learn consonants and vowels.	.87		
22. I have my child write ㄱ ㄴ ㄷ... ㅏ ㅑ ㅓ... 가, 나, 다 repeatedly in order for him/her to learn consonants and vowels.		.86			.72
15. I write a consonant, a vowel, or a word randomly and have my child copy it.		.84			.72
12. When I read words to my child, I write consonants and vowels or words randomly then let him/her read it.		.72			.55
20. I have my child take dictation.		.70			.55
11. I have my child put the letter puzzle correctly according to the rules of orthography.		.62			.47
21. I correct and have my child rewrite if my child writes a wrong shape or order of letters.		.57			.57
Picture-book reading interaction	5. When I read a picture book to my child, I ask various questions about a book story(ex: What do you think the 7th little goat feels when it sees a wolf?)		-.80		.64
	4. When I read a picture book to my child, I relate the contents of the book and my child's experience.		-.76		.62
	1. When I read a picture book to my child, I talk about not only letters but also pictures.		-.75		.53
	6. When I read a picture book to my child, I fully explain for my chil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words and the contents.		-.71		.57
	30. When I read a book with my child, I teach various characteristics of a book such as searching a book cover and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a book.		-.50		.42
Eigenvalue		5.97	3.09	1.76	
Pct of Var (%)		31.40	16.27	9.25	
Cum Pct (%)		31.40	47.66	56.91	

Table 4.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of parent's literacy interaction rating scale

Factor	Items	Cronbach's $\alpha$
Factor 1 (open interaction)	7	.86
Factor 2 (directive interaction)	7	.87
Factor 3 (picture-book reading interaction)	5	.78
Total	19	.68

으로서 적절한 요인구조를 찾고자 하였다. 이 때 각 요인이 독립적이라고 할 없기 때문에 직접 오픈리민을 실시하였다. 질문지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요인의 고유치가 .30, 요인 부하량이 .40이하인 문항과 여러 요인에 동시에 부하된 문항을 삭제하고,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 비율의 증감정도와 이론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요인분석을 반복적으로 실시한 결과 요인의 구조와 의미가 비교적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세 개 요인이라고 판단되었고, 총 19개 문항을 선택하였다. 제외된 문항은 문항 2, 문항 3, 문항 7, 문항 8, 문항 9, 문항 10, 문항 13, 문항 18, 문항 27, 문항 28, 문항 29, 문항 31이다.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 요인이 전체 변량의 56.9%를 설명하였고,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도 -.50에서 .87로 나타나 요인타당도의 증거를 보여주었다. 먼저 요인 1에 포함되는 문항은 총 7문항으로 전체변량의 31.4%를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항 16, 문항 17, 문항 19, 문항 23, 문항 24, 문항 25, 문항 26으로 '개방적 상호작용(open interaction)'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1은 부모가 자녀와 읽기, 쓰기 활동을 할 때 자녀의 흥미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자녀가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자녀가 쓴 글자의 맞춤법이 맞지 않아도 마음대로 글씨를 써보게 한다.', '자녀에게 길의 표지판이나 가게 간판에 쓰여진 글자 등을 손으로 가리키며 읽어준다'). 요인 2는 7개 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전체변량의 16.27%를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항 11, 문항 12, 문항 14, 문항 15, 문항 20, 문항 21, 문항 22로 '지시적 상호작용(directive interaction)'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부모가 자녀와 읽기 쓰기 활동을 할 때 자녀보다는 어머니의 관심에서 시작하고, 철자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예: '자녀가 자모음을 알게 하기 위해 ㄱ ㄴ ㄷ... ㅏ ㅑ ㅓ...가나다를 반복해서 읽게 한다.', '자녀가 쓴 글자의 모양이나 획순이 잘못되었을 경우 바르게 쓰도록 고쳐주고 다시 쓰게 한다.'). 요인분석 시 지시적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문항은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요인 3은 5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9.2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문항 1, 문항 4, 문항 5, 문항 6, 문항 30으로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picture-book reading interaction)'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자녀와 함께 그림책을 읽을 때 부모가 보이는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예: '자녀에게 그림책을 읽어줄 때 책의 내용과 아이의 경험을 관련 지어 읽어준다'). 각 요인의 고유치는 개방적 상호작용이 5.97, 지시적 상호작용이 3.09,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이 1.76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별 문항들을 확인하고 요인명을 부여하여 총 3개의 요인과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부모 문해 상호작용 평정척도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 2) 공인타당도

부모 문해 상호작용 평정척도의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 문해 상호작용 평정척도의 총점과 EC-HOME의 학습자극 요인 및 언어적자극 요인 총점 간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r = .39$ 로( $p < .01$ )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3) 부모 문해 상호작용 평정척도의 신뢰도 부모 문해 상호작용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최종 선정된 문항들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가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요인별 내적 합치도 계수는 요인 1(개방적 상호작용)이 .86, 요인 2(지시적 상호작용)는 .87, 요인 3(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이 .7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 문해 상호작용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제시한 문항변별도, 요인분석, 타당도, 신뢰도 검증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 문해 상호작용 척도의 각 문항이 부모 문해 상호작용의 질을 변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문항별 상, 하 집단 간 문항반응의 카이제곱( $\chi^2$ ) 과 Cramer V를 산출하여 문항 양호도를 알아본 결과, 39개의 문항 중 6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문항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변별도가 약한 6개의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 주도하에 맞춤법에 맞게 글씨를 읽고 쓰기'에 관한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발음중심 언어접근 방법에 기초한 내용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모와 자녀 간 문해 활동 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질을 변별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문항이다. 특히,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영유아 시기부터 맞

춤법에 맞게 글자를 읽고 쓰는 훈련을 유아에게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중요한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항을 포함하고도 Cronbach's  $\alpha$  계수가 해당영역에서 .87로 나타났기 때문에 문항을 삭제하지 않고 포함하였다.

둘째, 척도의 타당도에 대한 검증은 요인분석 및 EC-HOME의 학습자극요인 및 언어적 자극 요인과의 관계분석에 의해 이루어졌다. 요인분석 결과 19개 문항의 3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세 요인은 전체 변량의 56.9%를 설명해주었다. 요인 1은 '개방적 상호작용(open interaction)'으로 총체적 언어접근 방법에 기초하여 자녀의 요구와 흥미에서 출발하며 글자의 맞춤법 보다는 자연스럽게 자녀가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2는 '지시적 상호작용(directive interaction)'으로 발음중심 언어접근 방법에 기초하여 부모가 자녀와 읽기 쓰기 활동을 할 때 자녀보다는 어머니의 관심에서 시작하고, 맞춤법에 맞게 글자를 읽고 쓰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요인 3은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picture-book reading interaction)'으로 자녀와 함께 그림책을 읽을 때 부모가 보이는 상호작용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발음중심 언어접근 방법과 총체적 언어접근 방법에 의해 부모가 자녀와 문해 상호작용을 할 때 나타나는 상호작용 행동을 의미 있게 구분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림책 읽기 활동은 가정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문해 활동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정 문해 활동을 측정하는 선행연구에서 그림책 읽기 활동을 주요하게 다루는 것과 [1, 18] 일관성 있는 결과이다.

부모 문해 상호작용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EC-HOME의 학습자극 요인 및 언어적자극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HOME이 아동의 언어능력과 문해 기술을 가장 잘 예측한다는 선행연구[19]에 따라 EC-HOME의 학습자극 요인 및 언어적자극 요인을 준거도구로 선택하였다. 부모 문해 상호작용 척도의 총점과 EC-HOME의 학습자극 요인 및 언어적자극 요인의 총점간의 관계를 산출한 결과  $r = .39$ 로( $p < .01$ )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척도의 요인 구조 및 외적 준거와의 상관은 본 척도의 타당도를 제시하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부모 문해 상호작용 평정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전체 19개 문항은 .68, 요인 1인 '개방적 상호작용'은 .86, 요인 2인 '지시적 상호작용'은 .87, 요인 3인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은 .7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내적합치도 계수는 문항 수의 영향을 받아 문항수가 적은 경우 더 낮게 나타날 수 있어 다른 요인에 비해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의 내적합치도 계

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가 낮아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내적 합치도 계수가 .60이면 양호한 수준[20]이기 때문에 본 척도는 신뢰로운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항 양호도,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결과에 기초해보면 우리나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모와 유아기 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본 척도는 부모 문해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 대상 어머니는 서울, 경기, 대전으로 국한되어 있고, 특히 중류층의 취업 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폭넓은 지역과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 문해 상호작용을 부모 보고에 의한 질문지 형식으로 평가하였다. 보다 정확한 부모 문해 상호작용에 대한 탐색을 위해 부모 문해 상호작용을 관찰 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 문해 상호작용 척도는 그동안 가정의 물리적인 문해 환경, 부모와 자녀의 문해 활동에 국한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부모와 자녀 간 문해 활동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취학전 유아를 둔 부모가 자녀의 문해 상호작용 관련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References

1. Baker, L., & Scher, D. (2002). Beginning reader's motivation for reading in relation to parental beliefs and home reading experience. *Reading Psychology, 23*, 239-269.
2. Britto, P. R. (2001). Family literacy environments and young children's emerging literacy skills. *Reading Research Quarterly, 36*(4), 346-349.
3. Burgess, S. R., Hetch, S. A., & Lonigan, C. J. (2002). Relations of the home literacy environment (HLE) to the development of reading-related abilities: A one-year longitudinal study. *Reading Research Quarterly, 37*, 408-426.
4. Caldwell, B. M., & Bradley, R. H. (2003). *HOMe inventory administration manual: Comprehensive edition*. Little Rock, AR: University of Arkansas at

- Little Rock.
5. Cho, H. S. (2004). *Perception of kindergarten teachers and parents about reading & writing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6. Clark, M. M. (1984). Language at home and at school: Insights from a study of fluent readers. In J. Goelman, A. A. Oberg, & F. Smith (Eds.), *Awakening to literacy*. (pp. 122-130). London: Heinemann.
  7. Foy, J. G., & Mann, V. (2003). Home Literacy environment and phonological awareness in preschool children: Differential effects for rhyme and phoneme awareness. *Applied Psycholinguistics*, 24, 59-88.
  8. Hindman, A. H. (2008). *School-family partnership and early learning: The role of school outreach and family involvement preschooler's literacy and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USA.
  9. Hwang, H. Y. (2005). *Influence of the family income, children's language ability and home literacy environ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0. Jung, J. Y. (2006). *The relationships between home literacy environment and children's print concep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1. Kim, M. S. (1999). Mother's belief in the reading and writing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and home literacy environment. *Human Ecology Journal*, 13, 120-131.
  12. Lee, J. H., & Kim, Y. J. (2005). The effects of explicit vocabulary instruction through picture book reading on young children's acquisition of word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0(4), 297-31.
  13. Lee, M. S. (2011).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preschoolers' emergent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literacy skills: maternal language behavior in picture book read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4. Lee, S. H., & Park, H. K. (2007). The effects of the balanced literacy program for young children. *Ewh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9(2), 113-135.
  15. Mason, J. M. (1980). When do children begin to read? An exploration of four-year-old children's letter and word reading competencies. *Reading Research Quarterly*, 15(1), 203-227.
  16. McGee, L. M., & Richgels, D. J. (2000). *Literacy's beginnings: Supporting young readers and writers*. (M. S. Kim & Y. L. Shin, Trans.). Seoul: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1996)
  17. Morrow, L. M., Sharkey, E., & Firestone, W. A., (1993). *Promoting independent reading and writing through self-directed literacy activities in a collaborative setting*. Reading research report No. 2. Athens, GA: National Reading Research Center.
  18. Park, C. H., & Kim, G. S. (2008).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the home literacy environment rating sca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6(9), 87-97.
  19. Roberts, J., Jurgens, J., & Burchinal, M. (2005). The role of home literacy practices in preschool children's language and emergent literacy skill.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Research*, 48, 345-350.
  20. Sung, T. J. (2010). *Validity and reliability*. Seoul: Hakjisa.
  21. Weigel, D. J., Martin, S. S., & Bennett, K. K. (2006). Contributions of the home literacy environment to preschool-aged children's emerging literacy and language skill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3), 357-378.
  22. Xue, Y. (2002). *The influence of early literacy instruction on children's learning in kindergart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USA.
  23. Yim, Y. G. (2005). *Effect of balanced-approach using young children's name lett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

접 수 일 : 2012년 9월 3일  
 심사시작일 : 2012년 9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0월 12일